

군산, 코로나19 철통방역체계 구축

중국인 유학생들 건강 상태 관찰, 개인방역물품 지원 등 협조체계 유지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대학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달 12일 관내 대학들과 중국 유학생 관련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학에서 생활관 또는 원룸에서 통합관리하고 시에서는 생활관 방역 및 방역물품 제공과 입국하는 유학생을 공항에서 태워 대학의 생활관까지 바로 수송하기로 협의 한 바 있다.

이에 이미 입국한 개별 원룸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발열 및 기침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개인방역물품 지원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대학이 24시간 연락체계를 통해 유학생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의료 지원 지원과 의사 중상자가 있을 경우 환자 이송과 검사 의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군산대 유학생을 공항에서 생활관까지 9회의 버스를 운행해 88명의 입국 유학생을 수송했고, 군산대에서는 미리 입국한 2명을 포함해 90명의 중국 유학생을 생활관에 통합 관리 하고 있다.

군산대는 오는 15일, 호원대는 오는 27~30일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군산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3개교에 477명으로, 군산대가 372명, 호원대 86명, 군장대 19명이

다.

그중 2일 현재 이미 입국해 14일 격리가 해제됐거나 출국하지 않고 국내 머무른 유학생 83명, 휴학 등으로 입국유보자는 216명, 그리고 2일 현재 입국 14일이 지나지 않은 유학생은 94명이고, 앞으로 입국예정자는 84명이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관내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즉각 대응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대학 개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오는 학생 150여명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의 의장단은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능동감시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군산시의회, 비상근무자 격려 방문

능동감시 대응상황 등 보고 받고 격려품 전달

군산시의회의(의장 김경구) 의장단은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능동감시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4일 시청 지하 민방위상황실을 방문한 의장단은 코로나19 관련 능동감시 대응상황 등을 보고 받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김경구 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대응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내부문서가 밖으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능동감시 대상자 정보가 방치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관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졌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꼼꼼한 대응은 물론 대상자 정보가 방치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전국 첫 대학가 활성화 상생안 마련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원룸 손실액 보전키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유학생의 정원 기숙사 입주로 인한 대학로 원룸업체들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계기는 물론 중국 유학생 원룸 거주로 인한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4일 기숙사 전원 입소로 인해 대학가 원룸이 입게 된 피해를 보정하기 위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 입소해 입은 손실을 익산시가 일부 보전하고 앞으로 원룸 입주하는 자가격리 해제증

명서를 발급받은 유학생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원룸의 경우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합당한 사유가 입증돼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전원 기숙사에 입소시키기로 한 조치로 인해 대학로 원룸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후속 방안이다.

아울러 익산시는 원룸 업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4일 이상 격리를 마치거나 검체를 채취해 음성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에 한 해 자가격리

해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원룸에 입소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2일 원룸업체 대표, 원룸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 함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안전확보,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같은 시의 상생 방안 마련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대학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학가에도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코로나19 다중이용업소 지역전파 방지 총력

군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게임제공업소(PC방 등),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다중이용업소 지역전파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일과 3일에 걸쳐 해당과에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230여개소의 게임제공업소(PC방 등),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51개소에 직접 방문 공문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지역전파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소별 소독을 실시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배부하면서 손소독제는

출입구에 상시 비치하도록 하고 종사자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소독제 제작법을 공문에 명시해 업소들이 수시 자체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소 소독에 필요할 시 사전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와 협의해 소독제 수령 및 소독장비도 대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초중고 개학이 될 때까지 게임제공업소(PC방 등) 230여



개소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51개소에 대해 코로나 19 지역전파 예방 수칙 및 자체소독실시 SMS 문자 전송 등 지속적으로 업소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코로나19 극복'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50%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매월 총 670만원 정도 부과금액에서 335만원 정도 감면이 되며 월 사용료는 점포당 최대 7만4400원 가량 감면된다.

시는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인근 사설시장 및 지역소상공인 또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조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시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를 시장 곳곳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모집

군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신성장동력과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할 2020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내 지자체 최초로 성장 가능성과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는 유망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처음 선정된 10개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7.6%, 12% 증가세를 보이고 투자 확대를 실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4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2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소재 ▲ 창업한 지 3년 이상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으로 최근 3년 결산 매출액이 400억원 미만이면 된다.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전북 새만금 산학융합원 기업지원팀(063-454-2802, 2806)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군산시가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어촌환경 개선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지난해 2개 사업지에 이어 올해에도 3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총 5개의 사업지에 5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산시는 관내 어항 및 어촌환경 개선에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사업 2개 지구(무녀2구항, 명도항)는 주민과 수차례 사업방향을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조정성의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공사착공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